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2월 미 도매물가 예상외로 하락...식품가 하락

[미국 금융]

- WSJ: WSJ 달러 지수, 0.1% 하락한 103.52
- Bloomberg: 도매물가 하락으로 증시 상승세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경제팀, 긴급 재난 권한 하에 점차적인 관세 인상 검토
- Bloomberg: UBS “점차적인 미 관세 인상, 연준에 ‘골칫거리’”

[미국 생활]

- WSJ: 10년 안에 미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를 추월해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2028년까지 지속된다
- WSJ: 미국, 인터넷 연결 차량에 중국과 러시아 부품 사용 금지
- Bloomberg: 중국, 처음으로 일본보다 베트남에 더 많이 수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JP모건, 직원들에게 주5일제 지시
- Bloomberg: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소매업체
- Bloomberg: 중국, 머스크에 미국 틱톡 판매 검토
- CNNBusiness: 스타벅스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나가라”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Wholesale Inflation Surprisingly Eases on Drop in Food Prices

12월 미 도매물가 예상외로 하락...식품가 하락

- 12월 미 도매물가가 예상치 않게 둔화됐다. 이는 식품 가격 하락과 안정적인 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12월 최종 수요를 위한 미 도매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0.2%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4%였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도매물가는 11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 작년과 비교한 전반적인 도매물가지수는 3.3% 상승했으며, 핵심도매물가는 3.5% 상승해 지난 2023년 2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 또 다른 주요 물가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는 내일 수요일 발표된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수요가 견조하고 수입품 관세 인상을 주창한 트럼프 행정부의 도래로 최근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높게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The WSJ Dollar Index Falls 0.1% to 103.52****WSJ 달러 지수, 0.1% 하락한 103.52**

- WSJ 달러 지수가 0.09%나 0.08% 낮은 103.52를 기록 중이다. 이는 역사상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1월 6일 이래 하루 낙폭과 하락률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며, 4일 연속 상승세가 중단되었다.
- 지난 2022년 9월 27일 최고 증가치에서 1.54% 감소한 수치다.

WSJ 기사

Bloomberg: US Stock Futures Rise as Producer Inflation Slows: Markets Wrap**도매물가 하락으로 증시 상승세**

- 도매물가의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지난 미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S&P 500이 오늘 반등했다.
- 채권 시장 또한 지속적인 물가 강세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투자자들의 베팅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한 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내일 5일에 S&P 500은 1% 하향 또는 상향할 것으로 선물 거래는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Bloomberg: Trump Team Studies Gradual Tariff Hikes Under Emergency Powers****트럼프 경제팀, 긴급재난권한 하에 점차적인 관세 인상 검토**

- 트럼프 새 행정부의 경제팀은 관세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물가 급등을 피하기 위해 협상 지렛대를 높일 목적으로 점차적인 조치 즉, 매달 관세를 조금씩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국제재난경제권한(IEEPA) 행정명령 하에서 매달 관세를 2%에서 5%씩 점차 올리는 방식이 있다.

- 해당 방안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며 아직 트럼프에 보고 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 재무장관 지명자,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 그리고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인물이 해당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관련 소식을 말했다.
- 한편, IMF 사무총장은 관세 위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차입비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olling US Tariffs Would Be ‘Problematic’ for Fed, UBS Says UBS “점차적인 미 관세 인상, 연준에 ‘골칫거리’”

- UBS는 트럼프가 취임 후 관세를 점차 인상할 경우 이는 인플레이와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연준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UBS는 “일회성인 관세는 인플레이에 계속 여파를 줄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관세 조치일 경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계속 공급망에 영향을 주어 인플레이가 계속 올라간다.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U.S. Deaths Expected to Outpace Births Within the Decade 10년 안에 미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를 추월해

- 연방의회예산실은 작년에 예상과는 달리 향후 30년간 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와 출생자 감소 때문이다.
- 연방의회예산실은 이런 변화 때문에 작년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33년에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숫자도 하락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54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는 더 적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이나 재정 정책 등 모든 면에 중요한 여파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 미 인구는 올해 3억5천만 명에서 3억4천6백만 명으로 줄어들고, 2053년에는 작년 예상치보다 줄어든 3억7천2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성장이 향후 30년 동안 10.5%가 아닌 6.3%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Global Inflation Will Remain High for Years, Economists Tell Ifo**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2028년까지 지속된다**

-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고착화된 물가 압력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연구 기관인 German Ifo Institute와 the Institute for Swiss Economic Policy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3.9% 예상된다. 향후 3년간은 그보다 약간 줄어든 3.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는 125개국 1천4백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 조사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많은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목표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예상 속에서 주요 금리 인하는 일어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U.S. to Ban Chinese, Russian Components in Connected Vehicles
미국, 인터넷 연결 차량에 중국과 러시아 부품 사용 금지

- 오늘 화요일, 미 정부가 미국 도로에서 달리는 모든 인터넷 연결 차량에 중국과 러시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미 상무부는 외국의 해킹과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미 상무부는 2030년 모델부터 블루투스, 무선 통신 네트워크, 위성 부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수입을 금지하고, 2027년 모델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제조업체는 생산지와 관계없이 미국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미 상무부는 상업용 차량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승용차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럭과 버스를 비롯한 상업용 차량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 Exports More to Vietnam Than Japan for First Time as Supply Chains Shift**중국, 처음으로 일본보다 베트남에 더 많이 수출**

- 베트남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 됐다. 어제 월요일, 중국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베트남 수출은 거의 18% 증가한 1천6백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1천5백20억 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 저렴한 중국 제조업체 물건이지만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
- 이에 따라 중국이 동남아시아로 부품을 수출하면 동남아시아에서 부품을 조립해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기업들의 투자로 베트남이 이득을 보고 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 회장 Nguyen Mai는 “관세 리스크를 피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대(對) 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JPMorgan Tells Staff to Return to the Office Five Days a Week

JP모건, 직원들에게 주5일제 지시

- JP모건이 팬데믹 기간 시행된 재택근무 정책을 끝내고, 모든 직원에게 3월부턴 주5일제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 운영위원회는 “재택근무와 출근의 하이브리드 일정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5일제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생활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옵션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를 한꺼번에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명령은 실행하기 어렵다. 아마존은 작년 1월부터 주 5일 근무를 지시했지만, 일부 도시에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수천 명의 직원의 복귀 일정을 늦춰야 했다. JP모건도 주5일제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y a Radical Retail Experiment Worked for Abercrombie and Barnes & Noble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소매업체

- 매장 내 고객 경험이 나빠지고 있다. 인력 부족, 잠금장치, 셀프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 유도 등 마치 고객을 맞이하는 데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매장과 대형 자판기가 다를 게 없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대침체 이후 소매업체의 CEO는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 컨설턴트, 재무 담당자들로 바뀌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소매업체 운영을 뼈대만 남길 정도로 축소했고, 고객들 입장에서 소매업체를 방문할 이유가 사라졌다.

- 이제 소매업체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예를 들어 Barnes & Noble은 새로운 CEO로 영국에서 독립 서점 체인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James Daunt를 영입했다.
- 그는 매장과 온라인에 BookTok(틱톡의 독서 커뮤니티)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진열해 고객들이 인기 있는 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는 고객 친화적인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해 매장을 운영 하는 것이다. B & N 외에도 Abercrombie와 같이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CEO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 Weighs Sale of TikTok US to Musk as a Possible Option

중국, 머스크에 미국 틱톡 판매 검토

- 미국이 틱톡 금지 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머스크에 미국 틱톡 사업부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틱톡 관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 머스크는 트럼프의 최측근이며, 대형 SNS 플랫폼 X(전 트위터)의 소유주다. 머스크는 작년 4월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틱톡 금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중국 정부는 관련 계획은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며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틱톡 모기업 ByteDance도 허구가 근거한 코멘트에 논평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머스크와 그 대리인도 논평을 거부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Starbucks' new rules: Buy something or get out

스타벅스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나가라”

- 스타벅스가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카페에 들르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정책을 폐지했다. 스타벅스는 카페를 즐기기 위해 돈을 지불한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포장 대신 매장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장 내 주문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1월 27일부터 스타벅스 머그잔이나 재사용 유리잔을 가져온 고객은 한 잔의 무료 커피 리필이 가능하다. 이 혜택은 스타벅스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었다.
- 이외에도 스타벅스는 새로운 정책으로 구걸, 차별, 외부 알코올음료 소비, 전자담배 금지 등을 추가했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곧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달러 가치 2년여만에 최고...골드만삭스 "5% 추가 상승 가능"
트럼프 관세정책·인플레 우려 등 영향
강달러에 '1유로=1달러' 붕괴 가능성도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 '발작'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여기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달러 가치가 5%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